

■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 회의명 :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1차 연극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28일(수) 13:0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량원, 염혜원, 전강희, 전진모, 홍은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사업의 취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제반 요인을 매개로 창작자에게 원활한 제작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해당 공연장의 운영 방향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주체를 만나기 위한 경로로도 자리한다. 이는 창작자와 공연장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해당 공연장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더 나은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방안 중의 일환이기도 하다.

심의 기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놓고 크게 ‘창(제)작 계획’과 ‘운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각각 30% 가중치, 해당 공연장이 제시한 ‘사회적 역할’ 항목에 40% 가중치가 배정되었다. 1차 대관 심의는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한 대본을 검토하는 서류 전형으로 진행되었고, 각 심의위원이 대상별 신청 건수에 매긴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을 산출해 평균 점수 75점 이상을 받은 신청 건수를 2차 심의 대상으로 선별했다. 올해 연극 분야 신청 건수는 연극과 뮤지컬, 다원, 기타, 축제 등을 포함해 102건으로 이 중 한 단체가 대관 취소를 알려 총 101건을 대상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해 60건을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무용과 연극 분야 심의위원회가 중복해 검토한 다원, 기타, 축제 일부는 분야별 심의위원회의 평균 점수를 합산해 결과를 산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공연장 이용자의 중복과 일종의 중복지원 성격을 주효하게 다뤘다. 해당 공연장의 한정된 이용 일자를 고려해 반복해서 공연장을 사용하게 되는 대상의 중복보다는 더 다양한 창작자에게 공연장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 심의위원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가령, 축제 참가 단체가 같은 작품으로 개별 대관 신청을 한 경우, 이전 연도에 같은 작품으로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했던 단체의 신청 건수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같은 단체가 복수의 작품을 신청한 경우 한 개의 신청 건수만 수용하고, 다른 단체의 신청 작품에 참여하는 연출가나 작가 역시 특정 창작자가 해당 공연장을 같은 해 여러 번 사용하는 것도 이용자의 중복이라 여겨 건별 사안으로 집중해서 논의했다.

한편, 중장기 지원사업이나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단체의 신청을 놓고 중복지원에 관한 의견이 있었는데, 해당 신청서로 드러나는 단체의 운영계획으로는 실

질적인 사업비의 편성이나 집행이 드러나지 않아 중복지원을 예단하는 것이 어렵고,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받은 단체도 내부적인 운영 변수가 많아 그 중복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리인 상황이라고 여겨 선정 대상에 제외하지는 않고 건별 논의를 통해 신청 취지와 내용을 검토했다.

축제의 경우 개최 취지와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면서도 축제의 공연장 사용일수가 길어 그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개별 축제가 민간단체의 창작 지원과 유통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꼭 특정 공연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인근 대학로 주변의 공연장과 연계해 축제의 시너지를 높이는 경로가 있기에 오랜 기간 공연장을 축제 주최가 독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공연장 이용일수 조정과 안배가 필요하다고 여겨 이 부분은 2차 심의를 통해 고려하기로 했다.

1차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는 선정그룹의 특성 중의 하나는 중장기 지원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았다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장기 지원사업이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가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해당 공연장의 운영 방향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중복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쏠림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청서 양식에 제시된 ‘사회적 역할’에 관한 단체의 입장이나 자세가 다소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형식적으로 분량을 채우거나 빈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신청자의 자율적 판단과 작품의 취지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여기나 심의 기준에 따라 서류만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자의 제작 동기나 독창적인 작품의 취지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해당 공연장의 방향성과 예술 현장을 고려하면 신청단체가 제시하는 창작 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창작 초연의 상당수가 번역작품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창작극만을 고수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번역극의 우세나 트렌디한 주제나 소재의 중복은 예술의 다양성 측면을 저해한다고 여긴다. 이에 앞서 언급한 해당 공연장이 제시하는 ‘사회적 역할’에 관한 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역할’을 매개로 해당 공연장에서는 민간단체의 독창적인 제안이나 프로젝트를 수용하고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러한 취지가 온전하고 적확하게 실행되기를 바란다.

한편, 민간단체의 레퍼토리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공연장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해당 공연장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과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공연되는 축제

나 뮤지컬의 대관을 포함해 민간단체가 레퍼토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과정상의 단계를 살필 때 해당 공연장의 방향성과 역할 범위를 더 명확하게 구분해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심의위원 일동